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4

지난 학기 재정학 학기말 시험 채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글로 정리해 이 게시판에 올린 후 인터넷 공간에서 꽤 많은 논란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글은 요즈음 우리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에 무척 서툴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내 지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지만, 개중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 못 가르쳐 놓고 왜 학생 탓을 하느냐?”는 반박성 글이 꽤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내 제자들을 탓하기 위해 그 글을 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으로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지적해 주고 스스로 고쳐 나갈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실은 흔쾌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서도 성과가 좋지 않은 점이 딱하게 느껴져 그 글을 썼던 것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그 글을 고깝게 받아들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386세대의 한 대학 교수가 20대의 탈정치화 경향을 비판한 글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된 20대는 자기들이야말로 열심히 공부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나무라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대를 싸잡아 매도하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20대에 속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천양지판으로 다를 게 분명한데, 하나로 묶어 비판하고 있으니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진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를 불문하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올린 글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 논쟁에서 20대가 보인 강력한 반발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비판 받기를 무척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비판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판을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혹시 귀담아 들을 점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악의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근거도 없이 비판을 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도 역시 학생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욕먹을 각오하고 또 한 번 쓴 소리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이 욕먹을 것을 두려워해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좀 더 대범하게 그리고 패기 있는 자세로 세상을 헤쳐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젊은이답지 않게 너무 소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 경제학원론 2(거시부분)에는 3명의 경제학부 정교수와 1명의 시간강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 정교수 3명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될 시점에서 수강생 현황을 보면 정교수 3명의 강의를 신청한 학생의 총수가 시간강사의 강의를 신청한 학생 수의 1/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수강신청 변경을 통해 정교수들의 강의 수강자 수가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셋의 수강자 총수가 시간강사 강의의 수강자 수보다 더 적습니다.

왜 이런 ‘정교수의 굴욕’이란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우리 자신의 반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위시한 3명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욕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강의의 질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나이만 앞세워 학생들과 눈높이는 맞추는 데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굴욕을 스스로 초래한 데 대해 나 자신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 치의 의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명같이 들릴지 몰라도, 학생들이 학점 관리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듣기에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경제학부를 지망하고 있는 사회과학대학 1학년생 중에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강의를 선택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나를 더 크게 놀라게 만든 또 다른 말도 들었습니다. 경제학부를 지망하는 사회과학대학 1학년생 중 경제학원론 2를 아예 듣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도 꽤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경제학부 진입을 위해서는 학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경제학원론 2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기피하려 듣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학의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학점 관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니요! 최소한 경제학에 입문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배울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전에 쓴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2”에서 강조한 바 있지만, 경제학원론부터 착실하게 마스터해야 경제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제학부에 진입한 후 미시와 거시 들으면서 경제학원론 1,2를 함께 듣겠다는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단기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학부 진입이라는 지상목표의 달성을 위해 학점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대범함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심한 전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나의 굳은 믿음입니다. 경제학부에 진입하는 일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 불가피하게 소심한 전략을 썼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소심한 전략으로 소소한 이득을 챙긴 사람은 계속 소심한 전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큼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소심한 전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 힘든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학생회에서 주최한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바둑을 전혀 두지 못하지만, 친구들이 그 대회에 많이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2, 3급씩 급수를 내려 출전하고 있더군요. 급수를 속이면 우승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니까요. 그런데 유독 한 친구만은 속이지 않고 자기의 평소 급수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우리는 뒷전에서 그 친구를 비웃었습니다. 다들 급수를 속이는데 혼자 잘난 척 했으니 초반 탈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그 친구는 강적들을 계속 꺾고 결승전을 향해 순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승은 못했습니다만, 그 친구는 예상치 못한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급수를 속여서 출전한 친구들 중에는 초반 탈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심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요. 급수를 속여서 출전한 사람들은 평소 실력대로만 두면 이길 거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머리를 짜내 바둑을 두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급수를 속여 출전했으니 게임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급수를 속이지 않고 출전한 그 바보 같은 친

구는 사생결단으로 바둑을 두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예를 보면 대범한 전략을 쓰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오히려 더 큰 역설적인 결과가 빚어지는 이유를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진정한 능력의 배양입니다. 결코 학점 관리가 대학생활에서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유학이나 취업 등의 측면에서 학점을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오직 좋은 학점 따는 것만이 지상의 목표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널럴한 과목 혹은 학점 잘 주는 과목만을 골라서 수강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또한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주력하지 않고,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 풀이에 주력하는 것 같은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강의, 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널럴한 강의와 학점 잘 주는 강의만 골라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는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경쟁력을 결정해주는 요인은 학점이 아니라 지적 성숙의 수준입니다. 학점은 좋지만 지적인 미숙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학점 관리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생각 밖으로 큰 것입니다.

요즈음 해외로 유학 간 학생들 중 자격시험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격시험에 떨어지는 사례는 그다지 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소식을 꽤 자주 듣고 있습니다. 최근 유학 가는 사람들의 평균 학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써달라고 나를 찾아오는 학생들 보면 평균 학점이 4를 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3.5도 못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을 거의 보기 힘들습니다.

이렇게 유학생들의 평균 학점은 계속 높아져 가는데, 자격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요? 이 예에서 학점이 바로 능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나는 이것을 요즈음 학생들이 학점 관리에만 신경을 쏟고 능력 배양에 소홀히 했음을 말해 주는 좋은 증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학점이 좋은 것을 보고 선발했는데 막상 일 시키고 보니 능력은 별 볼일 없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386세대 교수의 비판에 20대의 한 사람이 “우리를 스펙 경쟁으로 내몬 것은 바로 당신네 기성세대라.”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학점 관리라는 소심한 전략으로 내몬 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두들 소심한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나 혼자만 대범한 전략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항변에 일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심한 전략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젊음의 패기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소심한 전략을 쓸 때 대범한 전략을 쓰는 사람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히 남는 손해는 아닙니다. 인생의 선

배로서 여러분에게 충고해 주고 싶은 것은 일시적 이득과 손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묘한 것이어서, 한때의 손해가 얼마쯤 시간이 흐른 후에는 큰 이득으로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잘한 이득을 계속 챙겨 나가는 사람이 인생 전반을 놓고 볼 때는 결코 성공적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심한 전략을 한 번, 두 번 쓰다 보면 그것이 체질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만은 할 수 없이 소심한 전략을 써야 한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체질화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이미 소심한 전략에 상당히 심하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단지 학점 관리에 그치지 않고 온갖 종류의 스펙 경쟁에 몰두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젊을 때 용기를 내서 대범한 전략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이 들어 그런 기회를 갖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젊음의 패기로 돌파해 나가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무모할지도 모르는 시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값지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소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마음속의 행복을 느끼기도 힘듭니다. 자잘한 이득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믿고 대범한 전략으로 한 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흔쾌히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탓하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소심한 전략으로 인해 그 노력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 해서 나도 그것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 최선의 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결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ps. 내 잔소리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해 나가고 있는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잔소리를 그냥 무시해 버려도 됩니다.